

## 수원 시내 일부 여성의 영아영양법에 관한 실태 조사

이 종 현

동남보건전문대학 식품영양과

### A Study on the Infant Feeding Method of Mothers in Suwon City

Joung-Heyoun L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Dongnam Health Junior College, Suwon 440-714, Korea

#### Abstract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eeding methods of mothers in Suwon, Kyungkido. Incidence of breast feeding was 29.9% of the interviewed mothers, which showed lower percentages than those of previous surveys.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method of infant feeding were generally depended on mother rather than infant. The mothers who had a higher income and a higher academic career tended to prefer the bottle feeding to the other. And first birth order made them select the breast feeding rather than the other. Generally mothers knew the information about infant nutrition very well (91.0%), but their knowledge actually did not work. The sources of mother's information on the infant nutrition were the books of rearing infants and magazine. But there were some discrepancies between the actual and needed source of information; i.e. mothers wanted to acquire their information from mass communication.

Key words : breast feeding, bottle feeding, feeding nutrition knowledge.

#### 서 론

영아기는 신체 성장발달이 일생을 통하여 태아기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며 아동기의 영양 및 더 나아가 성인기의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의 영양장애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영아기 영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up>1,2)</sup>.

수유영양에 있어서 모유영양이 영아 전반기의 수개 월간에 걸쳐서 가장 바람직한 영양법이라는 점은 매우 잘 인식되어 왔으며 영양, 소화, 위생면 이외에 모체의 생리면, 모자간의 애정과 정신건강면에서도 모유의 우수성은 매우 중요하다<sup>3~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산업사회의 발달과 혁신적인 인공영양법의 개발에 따라 모유영양의 수는 급속하게 감소되기 시작하였다<sup>5)</sup>.

Corresponding author : Joung-Heyoun Lee

미국의 경우, 1940년대에는 영아의 약 60%이상이 모유영양을 하였으나 1970년대 초에는 15%에 불과하였으며<sup>6,7)</sup>, 또한 1970년대 초 브라질, 이디오피아, 말레이시아, 인디아 등에서도 모유영양이 감소하였다<sup>4)</sup>. 이러한 모유영양의 감소추세가 두드러지자 세계 각국에서는 모유영양에 관한 지도와 계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근래 모유영양의 지원과 권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모유영양이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서 미국은 1980년대 초 60%이상이 모유영양을 하였고<sup>6,7)</sup>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페르시아의 경우에는 모유영양 실천율이 90%이상으로 증가되었다<sup>8)</sup>.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는 모유영양이 90%이상이었으나<sup>9,10)</sup> 1970년대 후반부터 도시는 30~40%, 농촌은 50~60%정도로 감소하였고<sup>11,12)</sup> 1980년대에는 20%<sup>13)</sup>까지 감소하는 추세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국에 비해 모유영양의 중요성과 수유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보

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조사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5)</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도시(수원) 지역의 영아의 수유실태를 조사하여 영아영양법의 경향 및 수유부의 수유지식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여 모유 권장운동 및 영아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조사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시기

본 조사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254명을 대상으로 1992년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16일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영유아는 245명으로 남아 144명, 여아 110명이었다.

###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영아 영양실태, 수유지식, 교육의 필요성 등을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관련선행연구자<sup>13,15,16)</sup>들이 사용한 질문사항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일부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 3. 조사내용 처리

본 연구자료는 SAS program<sup>17)</sup>에 의해 통계처리하였으며 영아영양법과 수유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의 관련성을 Chi-square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1.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 가구의 가정생활 환경을 종합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남아 52.8%, 여아 47.2%였으며 연령은 6~12개월이 71.6%, 13~18개월이 20.1%, 19개월 이상이 8.3%로 대부분이 12개월 미만이었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58.7%, 둘째가 37.8%, 셋째는 3.5%였다. 출생시 체중은 3.1~3.5kg이 52.0%, 3.6~4.0kg이 28.0%, 3.0kg이 16.9%로 남·여간에 유의차( $p<0.05$ )는 없었으나 남

아가 여아보다 0.15kg 더 무거웠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거의 대부분이 고졸 이상이었으며(97.3%), 전문대출 이상은 28.0%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13.0%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가정의 월수입 정도는 60만원 이하가 24.8%, 60~80만원이 37.0%, 80~100만원이 28.3%, 100만원 이상이 9.9%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Mean ± S.D
Number of family members per household	3.1 ± 1.5
Nuclear family type(%)	80.7
Infant's age(month)	9.2 ± 4.7
Infant's birth order	1.3 ± 0.8
Mother's age(year)	29.1 ± 5.3
Percentage of mother's employment(%)	13.0
Family income per month (1000 won)	753 ± 203

### 2. 영아영양 실태

영아영양법의 분류는 현재 모유수유 중인 경우와 생후 6개월 이상 계속 모유를 먹인 경우를 모유영양으로, 생후 6개월 이전에 모유와 다른 유즙을 섞여 먹이는 경우를 혼합영양으로, 모유를 전혀 수유하지 않았거나 생후 6개월 이전에 모유영양을 중지하고 다른 유즙을 먹이는 경우를 인공영양이라고 하였다. 이는 영아기 중에서도 특히 생후 6개월간이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더욱 의미있는 기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sup>15)</sup>.

조사결과 모유영양은 전체의 29.9%, 인공영양이 55.1%, 혼합영양이 15.0%로서 모유영양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른 조사결과들을 보면 모유영양은 이 등(전남 승주군 농촌지역, 1968)<sup>9)</sup>의 95.6%, 이 등(전국의 8개 대도시지역, 1978)<sup>11)</sup>의 42.8%, 정(대전지역, 1979)<sup>28)</sup>의 60.4, 김 등(전북지역 농촌 및 도시근교, 1978)<sup>22)</sup>의 70.7%, 기타 흥 등(1982)<sup>18)</sup>의 65%, 김(1984)<sup>13)</sup>의 18.9%, 주 등(1984)<sup>19)</sup>의 62.7%, 김 등(1985)<sup>20)</sup>의 44.9%, 이 등(1991)<sup>21)</sup>의 40.0%로 보고되었다. 위 결과들을 비교해 볼 때 도시지역에서 지난 15년간 모유영양이 뚜렷

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조사결과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조사지역의 차이 및 모유수유 기간을 몇개월까지로 하는가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본 조사에서는 모유수유 기간을 6개월까지로 본 반면 김<sup>13)</sup>의 조사에서는 12개월까지로, 이 등<sup>21)</sup>은 4개월까지로, 권 등<sup>14)</sup>은 3개월 까지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모유영양을 실시하는 이유로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 서가 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아기의 정서를 위해서, 모유의 편리성 때문의 순이었다. 인공영양을 하게 된 이유를 보면 모유의 부족때문이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았고, 직장관계가 16.5%, 엄마의 건강조건이 14.2%였으며, 분유가 더 편리해서라고 한 경우도 7.1%로서 다른 조사결과<sup>15,20)</sup>들과 유사함을 보였다. 병원에서의 첫번째 수유가 인공영양이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7.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병원에 있어서 조제분유의 남용, 모자별실 사용 등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음을 시사하며, 어머니와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수유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모유분비는 영아의 흡유자극과 안정된 수유환경에 의해 촉진되므로 모유가 부족하더라도 모유수유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교육이나, 분유가 더 편리하다고 하더라도 모유수유의 장점 등을 강조하는 교육 및 계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3. 영아영양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아영양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영아측 요인과 어머니측 요인으로 나누어 이를 요인과 영아영양법과의 관계를 Table 2 및 Table 3에 나타내었다.

영아측 요인을 보면 Table 2에서와 같이 영아의 성별에 따른 영아영양법에는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없었는데 이는 김<sup>20)</sup> 및 황<sup>15)</sup>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한편, Helsing<sup>3)</sup> 등은 영아의 성별이 모유수유의 기간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심리적 현상보다는 문화적 현상이며 어떤 사회에서는 남자 아기가 더 오래 수유하기도 하고, 여성의 특성이 모유를 통하여 전달된다고 믿는 지역에서는 여자아기가 더 오래 수유한다고 하였다.

출생순위에 따른 영아영양법은 첫째 아기의 모유수유가 둘째와 셋째 아기보다 더 많은 경향을 보였는데 ( $p<0.01$ ) 이는 김<sup>12)</sup> 및 Martinez 등<sup>23)</sup>의 경우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출생시의 체중에 따른 영아영양법은 유의적( $p<0.05$ )인 영향은 받지 않았으나 출생시 체중이 3.1~3.5kg일 때 모유영양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 등<sup>19)</sup>과 John 등<sup>24)</sup>의 모유수유가 출생시의 체중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보고와는 달리 나타났다.

어머니측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가족수입에 따른 영아영양법을 Table 3에 나타

**Table 2. Infant's factors affecting feeding methods**

				N(%)	
Sex	Factor	Breast feeding	Bottle feeding	Mixed feeding	Total
	Male	42 (31.3)	72 (53.8)	20 (14.9)	134 (52.8)
	Female	34 (28.3)	68 (56.7)	18 (15.0)	120 (47.2)
Birth order	Total	76 (29.9)	140 (55.1)	38 (15.0)	254 (100)
	1 st	52 (34.9)	77 (51.7)	20 (13.4)	149 (58.7)
	2 nd	22 (22.9)	57 (59.4)	17 (17.7)	96 (37.8)
	3 rd	2 (22.2)	6 (66.7)	1 (11.1)	9 ( 3.5)
	Total	76 (29.9)	140 (55.1)	38 (15.0)	254 (100)
Birth weight	$\geq 3.0 \text{ kg}$	13 (30.2)	22 (51.2)	8 (18.6)	43 (16.9)
	3.1~3.5 kg	46 (34.8)	65 (49.2)	21 (15.9)	132 (52.0)
	3.6~4.0 kg	16 (22.5)	49 (69.0)	6 ( 8.5)	71 (28.0)
	$4.1 \leq \text{kg}$	1 (12.5)	4 (50.0)	3 (37.5)	8 ( 3.1)
	Total	76 (29.9)	140 (55.1)	38 (15.0)	254 (100)

Table 3. Mother's factors affecting feeding methods

N(%)

	Factor	Breast feeding	Bottle feeding	Mixed feeding	Total	Chi-square
Age	25 ≥ yr.	4 (33.3)	6 (50.0)	2 (16.7)	12 ( 4.7)	p<0.88 (N.S.)
	26~30 yr.	51 (30.9)	91 (55.2)	23 (13.9)	165 (65.0)	
	31~35 yr.	20 (28.2)	39 (54.9)	12 (16.9)	71 (27.9)	
	36 ≤ yr.	1 (16.7)	4 (66.6)	1 (16.7)	6 ( 2.4)	
	Total	76 (29.9)	140 (55.1)	38 (15.0)	254 (100)	
Education	Middle school	4 (57.1)	2 (28.6)	1 (14.3)	7 ( 2.7)	p<0.01
	High school	56 (31.8)	92 (52.3)	28 (15.9)	176 (69.3)	
	College	16 (22.5)	46 (64.8)	9 (12.7)	71 (28.0)	
	Total	76 (29.9)	140 (55.1)	38 (15.0)	254 (100)	
Job	Job	6 (18.2)	24 (72.7)	3 ( 9.1)	33 (13.0)	p<0.05
	Non-job	70 (31.7)	116 (52.5)	35 (15.8)	221 (87.0)	
	Total	76 (29.9)	140 (55.1)	38 (15.0)	254 (100)	
Income (1,000 won)	≥ 600	26 (41.3)	30 (47.6)	7 (11.1)	63 (24.8)	p<0.01
	601~800	34 (36.2)	50 (53.2)	10 (10.6)	94 (37.0)	
	801~1,000	13 (18.0)	40 (55.6)	19 (26.4)	72 (28.3)	
	1,001 ≤	3 (12.0)	20 (80.0)	2 ( 8.0)	25 ( 9.9)	
	Total	76 (29.9)	140 (55.1)	38 (15.0)	254 (100)	

내었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영아영양법은 유의적 ( $p<0.05$ )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연령증가에 따라 모유수유가 감소한다는 주 등<sup>19)</sup>, 김 등<sup>20)</sup>의 결과와는 다른 경향이었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빈도가 낮아졌는데 ( $p<0.01$ ) 이는 권 등<sup>14)</sup>의 연구결과인 생활수준이 높은 도시지역에서 모유영양을 적게 한다는 보고와 일치하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상위인 집단에서 모유수유를 많이 한다는 보고<sup>6,7,25,26)</sup>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주 등<sup>19)</sup>은 도시 엘리트층에서 모유수유의 감소는 생활수준의 향상,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역할의 변화 및 모유대체식품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인공영양을 더 많이 하고 있었는데 ( $p<0.05$ ), 이는 김<sup>12)</sup>, 권 등<sup>14)</sup>, 이 등<sup>21)</sup>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아기와 함께 있을 기회가 적어 모유수유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영아영양법은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모유영양이 현저히 감소하고 인공영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1$ ). 이는 권<sup>14)</sup> 등, 홍<sup>18)</sup>, 이 등<sup>21)</sup>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었는데 과거의 조사결과와 비교시 고학력군에서의 감소 정도가 더욱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경우<sup>26,27)</sup>에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빈도가 높음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수유부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의 장점 및 수유방법에 대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4. 수유영양 지식과 교육의 필요성

수유영양에 관한 어머니의 지식 정도를, 모유영양의 장점으로 구성된 10문항을 가지고 조사하여 “모유가 좋다”, “우유가 좋다”, “잘 모르겠다”로 분류하여 답하도록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유영양이 아기의 성장발달, 정서발달, 질병예방 및 편리성에서 좋다고 대답한 경우는 약 95%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건강과 산후 조리에 인공영양이 좋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15~20%나 되었으며, 영아비만에 대해서는 15%가 잘 모른다고 답하였

Table 4. Mother's opinion for infant feeding

N(%)

Items	Breast feeding is better	Bottle feeding is better	Unknown
Prevention infant's disease	241 (94.9)	5 ( 2.0)	8 ( 3.1)
Infant's emotion	249 (98.0)	0 ( 0.0)	5 ( 2.0)
Infant's growth & development	240 (94.5)	11 ( 4.3)	3 ( 1.2)
Preparation	239 (94.1)	3 ( 1.2)	12 ( 4.7)
Quantity of nutrient	210 (82.7)	24 ( 9.4)	20 ( 7.9)
Quality of nutrient	234 (92.1)	12 ( 4.7)	8 ( 3.2)
Mother's health	183 (72.0)	51 (20.1)	20 ( 7.9)
Convalescence after delivery	191 (75.2)	38 (15.0)	25 ( 9.8)
Infant's digestion	228 (89.8)	13 ( 5.1)	13 ( 5.1)
Prevention infant's obesity	203 (79.9)	13 ( 5.1)	38 (15.0)

다. 모유영양이 영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어머니의 산후회복을 촉진시키고 배란지연으로 가족계획에도 유리하며<sup>29,30)</sup> 유방암의 발생율을 낮춘다는 보고<sup>31)</sup> 및 영아기 이후의 비만 발생율을 낮춘다는 보고<sup>32)</sup> 등을 고려할 때 모유영양이 갖는 영아측 장점 뿐만 아니라 어머니측의 장점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김<sup>12)</sup> 및 이 등<sup>21)</sup>의 모유영양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조사에서 인공영양을 실시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모유영양이 좋을지 모르나 엄마로서는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유의적으로 많았음을 고려할 때 수유부 자신들의 모유영양을 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영아영양에 관한 10문항 중에서 7문항 이상 답한 경우를 어머니가 좋다고 생각하는 영아영양법으로 간주했을 때 모유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91.0%, 인공영양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1%,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3.9%로서, 권 등<sup>14)</sup>의 조사 결과와 비교시 모유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을수록, 학력이 높아질수록 모유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Fig. 1을 보면 모유가 좋다고 답한 어머니 중 실제로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는 31.2% 밖에 안되어서, 모유가 영아영양에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의 영아영양에는 모유수유 실천 정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인공영양이 좋다고 응답한

어머니의 84.6%가 인공영양을 실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영양이 좋다는 의견을 가진 어머니들이 인공영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한 원인은 상업적인 영향,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영아영양에 관한 지식의 습득원은 육아서적 및 잡지를 통해서가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아기수첩,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머니, 친구 순이었다. 이는 횡의 연구<sup>15)</sup>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촌을 대상으로 한 권 등<sup>14)</sup>의 조사에서는 책보다는 신문, 라디오, TV 등의 매스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어머니들에 대한 수유영양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8.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축정치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영아영양법별로는 모유영양군보다 인공영양군이 수유영양 교육의 필요성을 유의적으로 ( $P<0.05$ )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수유영양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어머니들이 원하는 교육방법은 매스컴이 가장 많았으며(62%), 다음으로는 학교교육, 병원, 보건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이 원하는 교육방법으로 매스컴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실제 영양지식의 습득원으로의 매스컴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수유영양교육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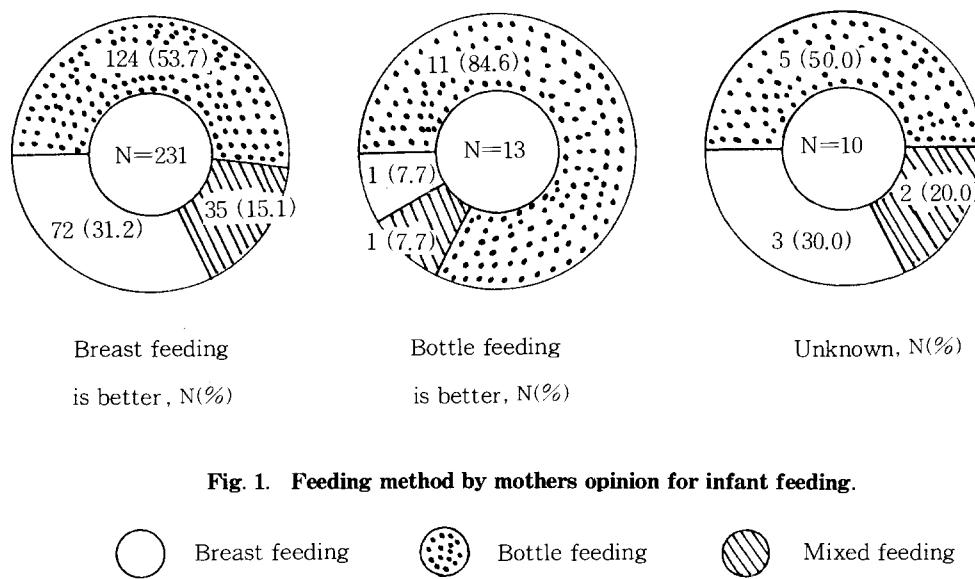


Fig. 1. Feeding method by mothers opinion for infant feeding.

		N(%)		
	Factor	Necessary	Non-necessary	Total
Feeding method	Breast feeding	63 (82.9)	13 (17.1)	76 (29.9)
	Bottle feeding	129 (92.1)	11 (7.9)	140 (55.1)
	Mixed feeding	34 (89.5)	4 (10.5)	38 (15.0)
	Total	226 (88.9)	28 (11.1)	254 (100)
Mother's age	25 ≥ yr.	11 (91.7)	1 (8.3)	12 (4.7)
	26~30 yr.	150 (90.9)	15 (9.1)	165 (65.0)
	31~35 yr.	60 (84.5)	11 (15.5)	71 (27.9)
	36 ≤ yr.	5 (83.3)	1 (16.7)	6 (2.4)
Mother's education	Total	226 (88.9)	28 (11.1)	254 (100)
	Middle school	5 (71.4)	2 (28.6)	7 (2.7)
	High school	158 (89.8)	18 (10.2)	176 (69.3)
	College	63 (88.7)	8 (11.3)	71 (28.0)
	Total	226 (88.9)	28 (11.1)	254 (100)

료되었다.

### 요약 및 결론

수원시에 거주하는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영유

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아영양법과 수유  
지식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된 설  
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조사대상 영유아는 총 254명으로 남아 144명, 여아  
110명이었다.

영아영양법의 실태는 모유영양이 29.9%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감소추세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유영양의 선택 이유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아기의 정서면, 모유의 편리함 때문의 순이었다.

영아영양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영아의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모유영양이 증가하였으며( $P<0.01$ ) 가정의 수입정도가 높을수록( $P<0.01$ ),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P<0.01$ ), 또한 직업을 갖고 있을수록( $P<0.05$ ) 인공영양을 많이 하였는데 영아족 요인 보다는 어머니족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유부의 영아영양지식에 대해서는 모유가 우수하다고 답한 어머니가 91.0%를 차지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모유의 우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모유영양을 실천하고 있는 비율은 31.2%로써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영양에 관한 지식은 육아서적과 잡지로 부터 습득하는 어머니가 가장 많았으나, 수유부가 원하는 영양교육방법으로는 매스컴이 가장 많아서 실제와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들에 관한 산전, 산후의 영아영양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모유영양의 우수성에 대한 강조 및 권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히 수유영양지식에 의해 지식을 활용하고 실천하는 비율이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영양교육 후 그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각적으로 연구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참고문헌

- 구재우, 모수미, 이정원, 최혜미 : 특수영양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서울, P. 357(1983)
- 이연숙 : 성장단계별 영양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영아기, 식품과 영양, 10(1), 20-23(1989)
- Helsing, E., King, F. S. : *Breast-feeding in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and Toronto(1983)
- Jelliffe, D. B., Jelliffe, E.F.P. : *Nutrition and Growth*, Plenum Press, New York and London(1979)
- Lew, A. Barness : History of Infant Feeding Practices, *Am. J. Clin. Nutr.*, 46, 168-170 (1987)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 Breast-Feeding, *Pediatrics*, 62(4), 591-601(1978)
- Samuels, S. E., Margen, S. and Schoen, E. J. : Incidence and duration of breast-feeding in a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opulation, *Am. J. Clin. Nutr.*, 44, 504-510(1985)
- WHO, World Health Statistics(1982)
- 이현금, 독고영창, 황우경 : 농촌지역 이유실태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2), 117-119(1968)
- 윤종준, 김인달 : 한국 영유아기에 있어서의 이유양상과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3, 65-80(1970)
- 이현금, 최민영, 김철규, 한동관, 현우, 이동기 : 한국 어린이의 이유에 관한 실태조사, 소아과, 21(10), 661-672(1978)
- 김성택 : 우리나라 영유아의 영양법 경향에 관한 연구, 소아과, 22(5), 1-16(1979)
- 김충희 : 1세이하 영유아의 수유실태에 관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4)
- 권은경, 채범석, 한정호 : 일부 서울시내 아파트 지역과 농촌지역의 모유 수유 실태와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협회지, 11(2), 17-27(1985)
- 황계순 : 우리나라 여성의 영아영양법에 관한 실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1)
- 이경자, 이보숙, 모수미 : 경기도 화성군 농촌의 유아영양법 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2(1), 12-18(1983)
- Joyner, S. P. : SAS /STAT Guide for Personal Computers, 6th ed,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1986)
- 홍대식, 정우식, 김홍규, 남병도, 김규택 : 내원환아 및 육아상담아의 수유실태에 관한 조사, 소아과, 25(4), 347-355(1982)
- 주신일, 박인화 : 영유아 모유수유 실태양상과 관

- 련요인 분석, 대한보건협회지, 10(1), 3-12(1984)
20. 김경희, 이근, 김충희, 이근수, 신상만, 한동관, 문수지 : 한국 영유아의 수유실태조사, 소아과, 28(10), 960-964(1985)
21. 이정실, 김을상 : 속초시 영유아의 이유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4(5), 469-476(1991)
22. 김인숙, 모수미 : 전북지역의 농촌 및 도시근교의 영유아영양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4(2), 59-69(1978)
23. Martinez, G. A., Nalezienski, N. P. : The Recent Trend in Breast-Feeding, *Pediatrics*, 64(5), 686-692(1979)
24. John, M., Martorell, R. : Incidence and duration of breast-feeding in Mexican-American infants 1970-1972, *Am. J. Clin. Nutr.*, 50, 869-874(1989)
25. Lewis, A. Barness : History of infant feeding practices, *Am. J. Clin. Nutr.*, 46, 168-170(1987)
26. Fomon, S. J. : Reflections on infant feeding in the 1970s and 1980s, *Am. J. Clin. Nutr.*, 46, 171-182(1987)
27. Andrew, E. M., Clancy, K. L. and Katz, M. G. : Infant feeding practices of families belonging to a prepaid group practice health care plan, *Pediatrics*, 65(5), 978-988(1980)
28. 정영진 : 영유아의 이유 실태, 한국영양학회지, 12(11), 23-30(1978)
29. Ginnenken, J.K.V. : Prolonged breastfeeding as a birth spacing method, *Env. Chil. Hlth.* April, 59-66(1975)
30. Schonenborn E. A. : Breastfeeding as a contraceptive method among a low income group of Tehrani women, *Env. Chil. Hlth.* Dec, 774-776(1976)
31. Cameron, M., Hofvander, Y. : *Manual on feed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2nd. New York. United Nation. p 18(1975)
32. Cunningham, A. S. : Morbidity in breast fed and artificially fed infants, *J. Pediatrics*, 95, 685-689(1979)

---

(1993년 5월 3일 수리)